



국어 1등급을 정말 원한다면

독서편

CONTENTS

독해편

CHAPTER 1

한평생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

1. 수능이란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20
2. 시험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14습관' 24

독해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고차원적인 사고 습관 10가지

-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28
-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천천히 읽기 33
- 머릿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와도 4분이다.
다시 읽기 39
- 최상위권들의 시험지는 백지에 가깝다.
지문에 표시하지 않기 45
-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교수님과 1대 1 미팅이다.
대화하며 읽기 50
-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는 대답에 만족하지 마라.
추상어 감지하기 54
- 일단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배경지식 쌓기 59
- 모든 글은 한 폭의 그림이다.
이미지화하기 63
- 교수님은 불친절하다.
부연 설명 만들기 68
- 한 번 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법.
문장 재구성하기 76

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습관 4가지

-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
어휘의 함축적 의미 79
- 정답률 11% 문제를 맞히는 방법.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 84
-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 89
-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애매하면 멈추기 97

CHAPTER 2

내가 1460일 만에 깨달은, 시험 칠 때 가져야 할 태도

1. 시간 절대 보지 않기
화작, 언매 15분, 문학 20분, 독서 40분,
마킹 5분이라는 환상 106
2. 함부로 과감하지 마라 108
3. 결국 침착함이 전부이다 108
4. 지문이 쉬워 보이는 순간을 조심해라 110
5. 배경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순간 틀린다 110
6. 어려운 문단은 2, 3개밖에 없다 111

CHAPTER 3

이 책을 덮고, 혼자 공부할 때

1. 하루에 몇 지문 풀어야 해요? 116
2.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해요? 116
3. 시기별 공부법 116
4. 시험 친 직후 드는 회의감 118
5. 기출 분석법 118

기출편

기출적용편

1.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았는데,
 뭐로 공부하지? 122
2. 14습관이 최고난도 문제에도 통할까? 122

인문

- 인문 1 2021학년도 수능, 복학론 125
- 인문 2 2025학년도 수능, 개항 이후 개화 개념 146
- 인문 3 2026학년도 6월,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 174
- 인문 4 2026학년도 수능,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 190

과학

- 과학 1 2020학년도 수능, 레트로바이러스 213
- 과학 2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 미생물 230
- 과학 3 2016학년도 수능 B형, 항부력 246
- 과학 4 2026학년도 수능,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 261

기술

- 기술 1 2021학년도 수능, 모델링 · 렌더링 278
- 기술 2 2019학년도 6월, LFIA 키트 293
- 기술 3 2025학년도 수능, 기계 학습과 확산 모델 309

경제

- 경제 1 2020학년도 6월, 미시 · 거시 건전성 327
- 경제 2 2020학년도 수능, BIS 비율 346
- 경제 3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367
- 경제 4 2022학년도 수능, 브레튼우즈 체제 389

법

- 법 1 2021학년도 수능, 계약과 예약 413
- 법 2 2020학년도 9월, 점유 · 소유 429
- 법 3 2025학년도 수능, 인터넷 ID와 명예훼손 445

3. 당부하고 싶은 말

- 【에필로그】 465

PROLOGUE

네가 고3이거나 재수생이라면, 이 책을 펴기 전 이미 많은 인강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과 비슷한 국어 공부법 책을 몇 권 찾아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찾아나서도 네 안에 있는 ‘애매함’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꾸준히 비문학을 풀어도 막상 시험을 쳐보면 틀리는 개수는 그대로였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스스로는 잘 읽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꼭 1문제씩은 틀렸을 것이다. 공부할 땐 성적이 막 오르는 거 같다가도 막상 학교에서 모의고사 쳐보면 또 성적은 그대로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국어는 타고나야 하는 거라고, 재능이 없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도 그랬다. 매일 3, 4시간씩 국어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비싼 모의고사도 사서 풀어보고, 나름대로 기출 문제집도 왕창 사다 놓고 많이 봤는데 중요한 시험에서는 항상 3, 4등급이었다. 글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머릿속에서 튕겨져 나갔고, 시험을 쳤다 하면 시간은 항상 부족했으며, 아무리 좋다는 강의를 들어봐도 성적은 제자리였다. 나도 너처럼 국어 성적 한 번 올려보겠다고 유튜브에 국어 공부법이란 공부법은 전부 찾아봤고,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에서 좋다는 인강은 전부 들어봤다. 그런데도 성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국어 잘하는 법을 물어보면, 그냥 글을 많이 읽으라고 하거나 국어는 타고나는 게 크다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한다.

재수를 결심하고 2개월 만에 ‘1등급’에 도달한 것이다. 나는 정말 ‘우연히’ 찾은 국어 공부법을 통해서, 내가 여태껏 해왔던 고민들이 말끔히 해결됐고 국어 성적은 ‘고정 1등급’이 되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로 ‘14습관’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14습관’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460p에 걸쳐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네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책에 있는 방법이 정말 성적을 올려주는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

“다른 1타 강사들이 말해주는 것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더 좋다고?”

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렇다. 너도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국어 1등급은 많다. 하지만 만년 3, 4등급에서 2개월 만에 고정 1등급으로 성적을 올린 사람은 매우 적다. 보통 계속 1등급을 받던 친구가 수능 때도 1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적을 올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왜’ 성적이 수직 상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공부법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거의 없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나는 고3 내내 만년 3, 4등급을 받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처음 친 모의고사에서 국어 5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국어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재수를 결심하고 단 2개월 만에 ‘고정 1등급’으로 성적을 올렸다. 1등급으로 올라선 뒤에는 6월, 9월 평가원을 비롯해서 사설 모의고사까지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쳐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성적이 오른 방법을 ‘국정원’이라는 책으로 썼다. ‘국정원’에서는 1등급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그렇게 ‘국정원’은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국어 공부법’ 책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국정원’은 많이 팔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책이다. 아래는 내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온 후기들 중 대표적인 후기들이다. 아래 후기들은 정말 단 1도 조작하지 않았다. 궁금하다면 네가 직접 ‘범작가’ 유튜브 채널에 와서 확인해봐도 좋다.

박OO (3등급 → 1등급)

박	
	국어
	언어와 매체
	136
	99
	1

국정원은 수능 국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정원을 접하기 전에는 독서 지문을 풀 때,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많이 사용하여 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를 풀 때 그 표시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이런 습관에 대한 조언이 나와있었고, 그 조언대로 공부한 뒤부터는 독서에서의 오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선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해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OO (4등급 → 1등급)

	국어
	화법과 작문
	126
	96
	1

국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주 자세한 해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유명한 기출 문제집들도 해설이 아예 상세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타 책들은 어딘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의 정답은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있지만 오답들은 해설이 되어있지 않음, 해설이 된 부분도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등) 그러나 국정원은 모든 선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 되어있기 때문에 저처럼 독해력이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있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귀신같이 원래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범작가님의 코멘트가 있어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든 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보면 알겠지만 22, 23수능을 응시했고 두 시험 모두 국어 4등급을 받았습니다. (모고도 4~5였습니다) 그렇게 반수 실패 후 복학해 학교생활을 하다 수능에 미련이 생겨 1년 휴학 후 한번 더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는 3월부터 시작해 다른 강사 분의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도 6월 모의고사의 결과는 낮은 3등급으로 그제서야 공부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범작가님의 영상 하나를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의 내용은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대략 국어 만년 4등급의 특징이었고 눈으로 빠르게 훑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대충 읽고 와리가리치기(...)등등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명하는 만년 4등급의 모습이 정확히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고 책 값도 저렴해서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해보자! 해서 국정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제 수험생활 중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윤OO (3등급 → 1등급)

일단 14습관을 제시해준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공부의 길을 제대로 잡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제가 접한 국어 공부에 관한 내용 중 처음으로 '다시 읽어도 된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입니다. 유튜브에선 지문을 읽을 때 절대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작가님을 접하기 전까진 그렇게 읽어왔고 그래서 성적이 정체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게된 이유는 유튜브 영상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국어 공부법 영상을 통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느꼈기에 이분이 쓰신 문제집이라면 믿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책들과 국정원의 차별점은 역시 해설입니다. 지문을 단순히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국정원의 가장 큰, 대체 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4습관을 통해 사고 회로를 익히고, 이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지문을 통해 연습하고, 해설을 보며 이 사고회로의 적용을 점검할 수 있는, 세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의 구성을 보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성적이 절대 안 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	
사	국어
	언어와 매체
	137
	100
	1

해설에서는 어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며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따로 노트에 정리해가며 글에 대한 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국어 성적이 떨어지며 3모 때는 3, 6모 때는 2컷에 걸쳤었습니다. 8월부터 최저 때문에 국어와 탐구만 잡고 달린 결과 수능에서는 백분위 100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독서 공부법을 간단하게 순서로 나타내보겠습니다.

1. 14습관을 읽는다
2. 종이에 14습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 습관 중 내 습관이 아닌 것을 지문 읽기 전에 훑어본다
4. 그 중에서 가장 익히고 싶은 습관 3개를 지문 위에 적는다
5. 지문을 읽고, 답을 확인한다
6. 선지에 대해 해설을 달아본다
7. 해설을 달지 못했던 부분의 지문을 읽어보며, 14습관 중 어떤 것을 적용하지 못했는지 점검한다
8. 국정원식 해설을 읽으며 내가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한다
9. 7~8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분을 노트에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정말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OO (3등급 → 1등급)



고3 여름까지 독서 문학이 계속 애매하게 잡히지 않아서 국어 공부법을 알아보다 추석연휴 직전에 작가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기만 하고 실모랑 EBS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영상이랑 오르비 글을 보고 바로 국정원 사서 지문 접근 태도랑 기출 문제를 죽어라 공부했는데, 독서/문학 지문을 읽는 방법이 탄탄하게 잡혀가더라고요. 그 후 상상모고X범작가로 실전 연습 및 지문 분석하고 수능 보러 갔더니 언매 97점 백분위99 받았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가장 약하고 불안했던 과목인 국어가 6모 79점(2 중후반)-9모 94점(2 후반)-수능 97점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히 독서가 약해서 불안감이 컸는데 국정원은 이런 저를 구원해준 레전드 교재라고 느꼈습니다..ㅎㅎ 이번 수능 성적과 대학합격증 보내드려요! 작가님께서 항상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OO (3등급 → 1등급)

최	OO	
사	국어	수
	회법과 작문	미
	131	1
	96	1
	1	

모의고사 보면 독서에서 주로 틀려서 보통 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 6, 9모의고사도 3등급이고요. 그래서 독서를 어떻게 할지 커뮤니티를 돌아보다가 국정원을 알게 되어서 유튜브를 봤는데 국어 공부법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다른 국어 독서 독학책을 본 적은 없고 인강을 들은 적은 있는데 지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강사의 방식을 터득해야 했는데 국정원은 미리 글읽기 방법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다 그리고 인강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한문장 한문장 자체가 이해조차 안되는 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느정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글을 이어읽고 세부정보를 분류하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국정원은 질문하기, 추상어 감지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
20230000000000000000	김		여	
영역	선택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한국사	-	-	-	
국어	화법과 작문	131	96	1

김00 (3등급 → 1등급)

국어	
언어와 매체	한글
134	
98	
1	

문00 (2등급 → 1등급)

문	
사	국어
	언어와 매체
	132
	97
	1

그동안 애매하게 알고 있던 지식을 글로 정리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어의 대원칙을 제시해 국어공부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점이 가장 기존의 책과 다른점이자 좋은점입니다. 저는 1,2학년때 1등급 3학년때는 1~2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를 못하진 않지만 저에게 여전히 국어는 불안하고 잘 모르겠는 과목이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때 왜 국어를 잘하는지, 문제는 어떻게 푸는건지,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건지에 대해 대답하지 못했고 그냥 감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감으로 푸는 것의 문제점은 풀이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을 저만의 규칙이 있으면 긴장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정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런게 없으니 계속 불안에 시달렸으며 문제도 잘 풀릴때는 잘 풀리고 안 풀릴때는 안 풀렸습니다. 국정원의 좋은 점은 그렇게 감의 영역으로 남겨둔 부분을 글로 정리해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국어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하기보다

갈래별로 방법을 따로 제시하고 또 잡다한 도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맞게 하는건지, 글을 이해하고 있는건지와 같은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전체 대원칙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어 전반을 공부할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수험 생활을 하다보면 단순히 감에 의존한 공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정리되어있으니 제가 그동안 애매하게 알고 있던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주기적으로 다시 꺼내보며 제 공부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대원칙과 뒤쪽에 있는 충분한 양의 실전적용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책 내용 전부가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ㅎㅎ 앞쪽에 있는 대원칙은 제 국어공부 전반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긴 수험생활동안 제가 흔들릴때마다 이 책을 다시 꺼내보며 국어공부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고, 정확하게 글로 원칙이 정리되어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을 나만의 규칙을 세워 불안에 떨지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언제든지 다시 꺼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다는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실전적용은 그렇게 만든 규칙을 연습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규칙을 세우고 혼자 연습을 하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는지 의심을 들때가 있는데 실제로 국어 지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줄한줄 코멘트가 달려있어서 쉽게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모든 문장에 코멘트가 달려있다는 점과 수록되어 있는 지문 양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문장에 코멘트가 달려있으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코멘트가 원칙을 어떤식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습하고 체화시키는 것도 훨씬 쉬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갈래의 글이 넉넉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국정원과 기출을 번갈아가며 공부하면서 국정원 1회독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그 후 회독에서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점점 나만의 규칙과 사고를 정교하게 교정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기출문제집을 준비해 국정원을 1회독 한 후 기출문제집을 풀니다. 당연히 1회독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기에 기출문제집을 푸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계속 시도하고 부딪히고 깨져본후 국정원을 다시 보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걸돌던 규칙이 흡수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정원->기출->국정원->기출을 계속 반복하며 공부를 해줍니다. 국어는 생각을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늡니다. 설령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답지를 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국어 실력이 늡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순간 무언가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는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고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정원과 기출문제집을 계속 번갈아가며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OO (3등급 → 1등급)

저는 지난 수능 국어를 준비하며 국정원을 통해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겪었습니다. 국정원을 접한 후 문학-비문학편, 상상모의고사 콜라보까지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이전까지 3등급이었던 국어 등급이 당해 수능 때에 1등급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독해스킬' 같은 것이 아닌 이미지화나 내면세계 공감 같이 실제로 체화할 수 있는 습관들을 알려주면서, 이를 직접 과외하는 것처럼 쓰여진 어체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독학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국어를 잘하게 하는 것을 넘어 국어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표준점수		134
백분위		97
등급	1	1

정OO (4등급 → 1등급)

현역시절과 재수시절때 제 국어 실력은 들쭉날쭉이었습니다. 1등급이 나올때도 있었고 4등급이 뜨기도 했습니다. 어렵듯이 국어는 이해와 감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화려한 스킬을 보여주는 동네 학원이나 인강 강사들의 말을 믿으며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 결과 현역과 재수 국어 성적이 모두 4등급이었습니다. 3수를 시작하면서 국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있을 때, 제가 가장 국어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문을 이해하고 풀었을 때 성적이 잘 나왔고, 밑줄긋고 암기에 급급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에서 국정원을 보았을 때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렵듯이 가지고 있던 이해와 감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정답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정원 문학 비문학을 구매해서 읽었고, 상승곡선을 그린 끝에 수능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화법과 작문	
136	
98	
1	

이OO (5등급 → 1등급)

국정원을 노베편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ㅋㅋ
올해 어디든 가고 끝낼 거 같아요ㅎㅎ

영역	원점수 (공통/선택)	등급	표준 점수	백분위
국어 언어와매체	92 (68/24)	1	130	95
수학 미적분	88 (70/18)	1	136	98

신OO (3등급 → 1등급)

언어와 매체
133
98
1

'다들 듣는 거니까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덱서 국어 인강을 결제했습니다. 인강이 모든 걸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강을 듣고, 나름 완벽하게 '체화'했다고 생각했을 때쯤, 3월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정말 열심히 풀었지만, 결과는 처참히도 3등급. 그렇게 어언 일주일을 유튜브 속에서 방황하다 범작가님을 발견했고, 기출학습에 기반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에 가장 완벽한 시발점이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여 덱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스스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른 책, 혹은 영상들은 국어 공부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런이런 인강을 들으면 된다.' 혹은 '이런이런 책을 풀면 된다'는 식으로만 안내해줍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기출'을 기반으로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다른 국어 공부법들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라는 깨달음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국정원을 정독하면서 저의 평가원 독서를 대하는 방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확히 말하면 국어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준 은인같은 책임입니다. 제가 원칙이자 철칙으로 지켰던 '이해가 안되는 문장이 없게 하자'는 물론이고, '1:1 대응 방식으로 답의 근거를 찾고 넘어가지 않는 것' 이 허를 찔렀습니다.

당연히 저는 국어 문제가 틀렸을 때 '아 여기 있는 걸 못 찾아서 틀렸구나 다음에는 잘 찾아야지' 에서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순간, 저의 공부 초점 자체가 아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오답할 때 국정원이나 기출문제집에 적게 된 빨간 글씨는 "몇 문단 어느 줄을 잘못이해함. 똑바로 읽어야겠다."가 아니라, "절대정신이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는 건, 절대정신을 수단으로 이념을 인식한다는 걸로 이해해야 깔끔하겠구나. 입을 수단으로 밥을 먹는 것을 입이 밥을 먹는다고 표현할 수 있듯이, 절대정신을 수단으로 이념을 인식한다는 건 절대정신이 이념을 인식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다음부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쉬운 상황으로 바꾸어 이해해봐야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오답을 하기 시작하면 저의 읽기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쉬웠고, 가시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 '국정원식의 사고방식'으로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기 초반에 국정원, 그리고 범작가님이 추천해주신 기출문제집으로 아침에 국어공부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5시 15분에 기상했습니다. 6시까지 등교 후, 자습실 책상에 앉아 조레(8시 35분) 전까지 매일매일 거의 2시간씩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출공부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매일 딱 1지문씩만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것마저도 끝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브레턴우즈, 헤겔의 변증법, 예약계약 지문과 같은 악명 높은 지문들은 처음 읽을 때 4시간씩 걸렸으니까요..) 모르는, 혹은 깔끔하게 읽히지 않는(머리속으로 정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문장은 모두 번호를 매겨 포스트잇에 해당 문장의 번호를 적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구어체로 쓴 부연 설명이 작은 글씨로도 포스트잇 2장을 꽉 채울 때도 있었고, 간단하게 저의 말로 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정말 최대한 범작가님의 설명을 보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려고 꼭 참았습니다. 처음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은 포스트잇으로 표시, 엑셀파일에 정리해두고 며칠 지나서 또 볼 수 있도록 날짜별로 계획해두어 이해하려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 하는 순간에는 다시 저의 말로 또 정리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이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때 범작가님의 해설로 들춰봤습니다. 범작가님의 생각과 저의 해석이 일치할 때의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게 중독성이 있어 제가 수능때까지 국어공부를 즐겁게(사실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ㅎㅎ. 학기가 시작되고 3-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는 하루에 국어지문 하나를 4시간씩 물어뜯고 있을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능공부를 10시간 한다고 해도, 국어에 4시간을 쏟기에

는 사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매일매일 2시간은 꼭, 그 2시간만큼은 반드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머리가 뜨끈해지고, 일어서면 어지러울 정도로 한 지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제 기억으로 수능직전까지 1년에 걸쳐 매년 같은 '쥐어뜯는' 방식으로 브레턴우즈 지문은 5번, 헤겔의 변증법 4번, 바나나 지문 4번, 예약계약 7번 이상을 반복한 후 드디어 스스로 글의 짜임새를 알고 정확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금의 저는 10년치의 기출 중 아무 독서 지문이나 떼와서 아무 문장이나 꼭 집어 10살짜 리에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무조건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또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인강을 듣던, 학원을 다니던 각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어과목에서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들이 국정원에서 본질적인 수능 국어 공부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김OO (5등급 → 1등급)

작년 제 나이 29세일 때, 수능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수득을 사서 공부하다가 도저히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유튜브에 수능국어 1등급을 검색하였고, 운이 좋게 범작가님의 영상과 국정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범작가님의 책은 컴팩트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계속 반복해서 체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은 책 한권에 그 틀에 대한 설명이 완벽히 들어있었습니다. 타강사님들 및 다른 책은 상당히 킨 커리와 여러가지 강의를 들어야해서 시간적인 소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은 그냥 책 한 권에 완벽하게 그 틀이 담겨있습니다. 타강사님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하는 것보다 시간적 소모가 적어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틀이 간결하고 체화가 쉽다)

4901	김	
영역	한국사	국어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135
백분위		99
등급	1	1

너무 많은 스킬과 생각을 가지고 실전에 임하면 뭐하나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14습관은 처음에 국정원을 읽고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었고, 이미지화와 내면세계 감상은 시험장에서 가장 쓰기 좋은 스킬(?)이라 생각되었습니다.(어찌보면 스킬이 아니라 작가가 원하는 감상법이겠죠?) 작년에는 6월쯤 국정원 비문학 편을 먼저 두번 보고, 마뎡팅을 구매하여 하루 4지문을 국정원식으로 읽어보자 훈련하였습니다. 마뎡팅과 함께 국정원 문학편을 구매하여 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2번 복습 후 마뎡팅을 구입하여 기출을 풀었습니다. 검은색 책과 붉은 책 두개를 사서 각각 2번씩 기출복습을 하였습니다. 이 때 문제를 그냥 푸는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국정원에서 배운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인지하며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배워서 안 써먹으면 쓸모가 없습니당). 그렇게 작년엔 국어 백분위 97(화작에서 다 틀림) 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4월 쯤에 국어 공부를 시작하여 마찬가지로 작년에 산 국정원 두개를 다 보았고, 기출을 2006년 까지 전부 보았습니다. 역시 국정원에서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부하였고, 그 후엔 수득, 리트 지문 등을 국정원 방법으로 독해하였습니다.(문학, 비문학 모두) 또, 14습관과 내면세계감상, 이미지화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두고 계속 인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국어 백분위 99를 받고, 의대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의 도전이었고, 해보지 않은 국어가 가장 무서웠지만 운이 좋게 국정원을 접하고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 국어가 되었습니다. 또 나이 30에 책 읽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네요. 이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3, 4등급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왜 오르지 않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 기출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왜 국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지 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3, 4등급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평범한 국어 실력의 3, 4등급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3, 4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

내가 국어 공부법을 터득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건 바로 ‘국어는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누구나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물론 타고난 재능에 따라 1등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자 다르겠지만, 정말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학창 시절에 누구보다 회의적인 학생이었다. 정말 하루 5, 6시간씩 국어 공부만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합리화를 했다. 국어는 소위 ‘재능충’들만 1등급을 받는 과목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국어는 그 어떤 과목보다 정직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말이다.

이 책을 쓰기 전, 나는 이미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한 달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교보문고에 가서 국어 공부법 관련 책을 전부 뒤져보았다. 대략 하루 평균 2~3권씩, 70권 정도 훑어보았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모두 다 뒤져본 뒤에 나는 이 책이 여태껏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보다 이해하기 쉽고 도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단 한 권도 이 책과 비슷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네가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스스로 느낄 것이다.

기존의 책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공통된 특징’은 글을 읽는 ‘본질적인 방법’을 말해주기보다는 글 읽는 스킬 같은 잡다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시 독해, 구조 독해, 문단 번호 매기기, 기호 표시 등등.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은 이미 1등급인 학생들에게나 유용한 것이었다. 또 그런 기존 책들이 말하는 방법은 시험장에서 쓰기에 무리가 있었다. 생각해봐라. 정말 네가 여태껏 배운 것들이 시험장에서 생각나던가? 그 책들이 말하고 있는 방법들은 체화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내가 봤을 때 3, 4년은 그 방식대로 읽어야 쓸 수 있을 거 같은 방법들이 수도룩했다. 그뿐만 아니라 책에서 쓰는 단어나 문장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계속 ‘3, 4등급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분명한 건 내가 3, 4등급을 받았었던 고등학생 때 그런 책들을 봤다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내가 3,4등급이었을 때 이 책을 읽었다면 깨달음을 얻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매 문장마다, 매 문단마다 이 생각에 맞춰 검토를 했다. 결론은 “반드시, 그렇다.”였다. 이 책의 원고 집필을 끝내고 정말 강한 확신이 들었다. 내가 3, 4등급 때 이 책을 읽었다면, 재수를 하지 않고 고3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한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다는 듯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매년 등장하고 있다. 이 책에는 2등급 이하 학생들이 국어 공부할 때 고민하는 내용,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전부 담았다. ‘1등급의 시선’이 아닌, ‘3, 4등급의 시선’으로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소해 놓았다.

또한 정말 3, 4등급이 읽어도 1등급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다. 문장 하나당 기본적으로 5번 이상의 검토를 했다. 추상적인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진 않은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문장은 없는지 정말 끈질기게 검토했다.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에 파일을 옮겨서 계속 읽었고, 이동할 때도,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도 잠잠이 검토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다. 이 정도까지 상세하고 와닿도록 독서 공부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을 거라고. 정말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봐도 독서는 걱정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이 책의 구성이나 내용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확신한다. 물론 기본적인 지문 해설이나 개념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비문학 독해의 ‘14습관’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이나, ‘우리가 갖춰야 할 시험장에서의 태도’ 등은 기존의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방법이다. 또한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모든 글은 한 폭의 그림이다’, ‘사자는 함부로 달리지 않는다’ 등 흥미로운 독해 개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에 제시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상위 4%의 독해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이 책을 읽은 뒤, 너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일도 없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손에 꼽을 것이다. 또 글을 읽고 난 뒤에,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하지만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많이 놀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확실하게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적이 오르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이 책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인지 설명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책이 네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책인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

“자, 그럼 이제
성적 한번 바꿔 보자.”

☀ 구체적인 책 활용법

〈Chapter 1. 한평생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에서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수능’이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즉,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험인지 알아야 그 능력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글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14습관’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놓았다. ‘14습관’은 1등급들이 글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14가지 습관을 말한다.

‘14습관’을 하나씩 읽으면서, 자신이 여태껏 했던 독해와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때 ‘14습관’을 읽으면서, 동시에 전부 외우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 습관들을 외우고 체화시켜야 하겠지만,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책을 ‘이해’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읽다보면 자연스레 ‘14습관’이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다.

그다음 〈Chapter 2. 1460일 만에 깨달은 시험장에서의 태도〉에서는 우리가 결국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강조한다. 수능도 하나의 ‘시험’이기에, 그 특징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말한다. 그래서 해당 챕터에서는 ‘시험장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팁들을 말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시험장에서 사소한 것들로 실수가 발생하면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이 파트에서는 네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 말해주면서 네 점수를 책임질 예정이다.

〈Chapter 3. 이 책을 덮고 혼자 공부할 때〉에서는, 이 책을 다 읽은 뒤 네가 스스로 비문학을 읽어 보고, 공부 계획을 짜고, 시험을 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적어 놓았다. 이 책을 덮고 난 뒤, 네가 스스로 공부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트이다.

‘독해편’ 이후에 이어지는 ‘기출 적용편’에서는 14습관을 전부 적용해서 역대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놓았다. 오답률을 기준으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비문학 지문들만 선별해 놓았다. 왜냐하면 ‘14습관’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지문에서도 통하는 방법이어야 네가 믿고 공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은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한 책이다. 따라서 1등급이 되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지문들로만 구성을 한 것이다. 그저 그런 난이도의 지문으로만 연습하면 1등급은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기출 해설 속에 ‘어떻게 읽어야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지’ 상세히 서술해 놓았다. ‘14가지 습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보여주면서, 정말 이 방법으로 풀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 것이다. 내가 3, 4등급 학생들을 과외할 때 설명해 주던 방식 그대로 옮겨 댔으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풀기 전에 앞서 배운 ‘14습관’을 노트에 옮겨 적기 바란다. 그리고 비문학을 풀기 전마다 반드시 그 습관들을 한 번 정독하고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14습관’이 빨리 체화가 되기 때문이다. 딱 30일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이후부터는 글을 읽는다는 게 정말 즐거운 일로 느껴질 것이다. 아마 지금은 믿을 수 없겠지만.

국어가 어려운 건 네 탓이 아니다.

아무도 너에게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챕터에서 그 지나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자.

독해편

CHAPTER. 1

한 평생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경이로운 글 읽기 방법

1. 수능이란 시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자, 글 읽기 방법을 말해주기 전에, 일단 먼저 우리가 치는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출제자는 ‘수능’이란 시험을 통해서 무슨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걸까?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능에서 비문학을 출제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독해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독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출제자는 네가 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비문학을 출제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3~4등급 학생들은 글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등급대 학생들은 이해를 못 했음에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 아무도 이해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등급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글을 이해했는지 알아낸다. 그래서 그들은 1등급을 받을 때까지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독해력’이 길러져서 1등급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평가원이 요구하는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현재 수능이 비문학 파트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독해력’이라고 통쳐서 말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4가지는 바로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 침착함’이다. 이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서”를 참고했다.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 침착함’이라는 단어들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너무 당연한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누구나 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아래에서는 각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그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지도 말하고 있다.

① 독해력

‘독해력’이란 ‘읽을 독(讀)’, ‘풀 해(解)’, ‘힘 력(力)’ 자를 써서, 말 그대로 글을 읽고 풀어내는 힘을 뜻한다. 이는 수능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만한 능력이다. 그런데 사실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도 익히 들어와서 별로 감흥이 없다. 내가 지금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지 않은가? 내가 답답한 이유는, 바로 그 ‘독해력’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니까 답답한 것이다. 그리고 또 독해력 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해봤자 그냥 ‘책을 많이 읽어라’ 정도이다. 근데 정말 책만 많이 읽으면 될까? 아니다. 어떤 원리로 독해력이 향상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면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독해력’은 오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독해력을 올리는가?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해야 하는 ‘생각의 습관’들을 배워야 한다. 즉, 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글을 읽을 때 특정한 생각들을 해주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책에서 바로 그 ‘생각의 습관’을 ‘14습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풀어내고 있다.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14 습관’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독해력’을 올리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② 사고력

쉽게 말해서 ‘사고력’을 물어본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정보를 ‘조합’하고, ‘분류’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관련된 예시를 생각해 내는 능력이 바로 ‘사고력’이다. 또 이 문장에서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다른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내는 것도 ‘사고력’의 일종이다.

‘독해력’이 글을 ‘이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라면, ‘사고력’은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글 속에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조합하거나, 그 글이 옳은지 그른지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을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능은 네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출제자는 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하는 힘이 얼마나 길러졌는지를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고력이란 능력 또한, 다음 장에서 말할 ‘14 습관’들이 없으면 길러지지 않는다. ‘14습관’ 없이는, 사고력을 기르려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쉽사리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③ 어휘력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들 중 뜻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가?

- | | | | | | | |
|--------|------|--------|--------|--------|--------|------|
| - 현학적 | - 통화 | - 도상적 | - 여론 | - 바야흐로 | - 겸연쩍다 | |
| - 향유하다 | - 환율 | - 지양하다 | - 시인하다 | - 금리 | - 재화 | - 규범 |

위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봤던 단어지만, 정확하게 뜻을 말하려니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 단어들은 모두 기출 문제에 ‘여러 번’ 활용된 단어들이다. 위 단어들 중 절반 이상이 헛갈렸다면, 수능 1등급을 받기에는 어휘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휘력’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 글쓴이는 A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읽는 사람은 그 단어를 B라고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두 단어씩 글쓴이의 생각을 못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지문 전체가 추상적으로 읽힌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나, 구체적인 상황들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럼 당연히 출제자가 요구하는 이해의 수준과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국어에서 어휘력은 성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어휘의 의미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휘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아예 모르는 단어 몇 개만 찾아볼 뿐, 애매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은 찾아보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 답은 ‘귀찮아서’다. 바로 내가 그랬다.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게 지문 읽으면서 느껴지는데도, 어휘를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찾는다 해도 겨우 1, 2단어 찾고 끝냈다. 사실 국어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도 찾아본다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그렇게 계속 어휘력을 기르지 않은 채로 글을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나고, 문제를 틀리게 될 텐데.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애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단어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책을 한 권 사고, 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낯선 단어들을 그 공책에 적어 둔다. 그리고 공부가 마무리될 시점에, 휴대폰으로 각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서 공책에다가 적어 둔다. 공책에다 적을 때는 ‘뜻’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인 ‘예시 문장’도 함께 적어 놓으면 훨씬 빨리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어휘력도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빠르게 오른다. 안 그러면 지문도 계속 명확하게 안 읽힐 것이고, 무조건 나오는 2점짜리 어휘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침착함

모든 시험이 그렇듯, 수능도 어쨌건 ‘시험’이기 때문에 ‘침착함’이 요구된다. 아무리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이 높은 학생이라도 지문을 읽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분명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내가 아무리 국어 1등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죽는다.”라고 옆에서 누가 총 들고 협박하고 있다면 침착하게 문제 풀기가 어려울 것이고, 분명 실수가 나온다.

침착함을 높이는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시험 직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글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정말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서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침착함’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침착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긴박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침착하다’라는 말 자체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온한 상태에서 평온하게 문제를 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8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없는 채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긴박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당연히 ‘침착함’도 길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글 읽기 능력인 ‘독해력, 사고력, 어휘력’을 높여야 한다. 뻔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다. 서울대 수학과 학생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푼다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긴장도 안 할 것이다. 이렇듯 긴장하지 않는 방법은 근본적인 실력을 올리는 것이다. 1등급들도 시험 칠 때 당연히 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등급을 받아내는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1등급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시험을 치든 1등급이 나온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떨지 않고 1등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2. 시험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14습관’

제목을 보고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라고? 습관 14개? 어떻게 다 외워...’. 그러나 내가 앞으로 말할 14가지 습관 중 하나도 안 하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14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몇 가지를 이미 하고 있다. 적게는 2, 3개부터 많게는 8, 9개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14습관’을 하나씩 보면서, 네가 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라면 습득하고, 하고 있던 것이라면 확신을 얻으면 된다. 나는 각 장을 순서대로 보길 추천하지만 제목을 보고 네가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부터 먼저 읽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전부’ 읽기 바란다. 그리고 ‘14습관’을 한 번에 외우려고 달려들 필요는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외워나가면 된다. 그리고 네가 굳이 힘들게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외워지도록 ‘기출 적용편’을 만들어 뒀으니 걱정하지 말자.

그럼, 이 ‘14습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해력’,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앞서 네가 ‘수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 파트를 이해했다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한다. ‘국어를 잘하려면 독해력,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 능력을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빨리 그 방법을 말해달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독해력,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머리를 자극해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

그렇게 가볍게 읽을 문장이 아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봐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는가? 앞으로 국어 공부 방향에 있어 이정표가 되어줄 문장이다. 먼저 ‘머리를 자극하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 머리를 자극하는 방법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동화책만 읽는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똑똑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계속 동화책만 읽는다면 절대 똑똑해질 수 없다. 아마 동화책을 몇천 권씩이나 읽어도 그 사람의 독해력과 사고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화책에 나오는 사고는 고차원적이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독해력’과 ‘사고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큰 자극’이 필요하다. 이때 ‘큰 자극’은 동화책이나, 교과서 읽기, 친구들과끼리 하는 대화로는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머리에 어떻게 ‘큰 자극’을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처음 읽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글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계속 부딪혀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글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한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머리를 자극하게 되고 독해력과 사고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내 독해 수준보다 어려운 수준의 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네가 지금 고정 1등급이 아니라면 그 글은 바로 ‘기출문제’다. 네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네 독해력이 기출 문제에 나오는 지문을 완벽히 이해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면서,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독해력과 이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기출문제에는 우리가 평소 접하는 글과 대화의 수준보다 훨씬 어렵고 수준 높은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해력, 이해력이 길러진다.

📌 고차원적 생각을 하는 방법

아까 나는 위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머리를 자극하고, 고차원적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머리를 자극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그런데 ‘머리를 자극’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이미 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기출 문제를 풀어도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누구는 그대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인 ‘고차원적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고차원적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1등급으로 가겠네?”

정답이다. 그리고 그 ‘고차원적 생각을 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앞으로 말할 ‘14습관’이다. 그래서 ‘14습관’을 배우면 누구나 1등급으로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14습관’에서 말하는 대로 기출문제를 풀면 ‘머리를 자극하고 고차원적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독해력’과 ‘사고력’이 오르기 때문에 1등급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4습관’을 보면서 1등급들이 어떻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자.

3. 국어 1등급의 14가지 습관

독해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고차원적인 사고 습관 10가지

1.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놓기
2.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천천히 읽기
3. 머릿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와도 4분이다, 다시 읽기
4. 최상위권의 시험지는 백지에 가깝다, 지문에 표시하지 않기
5. 글을 읽는다는 건 교수님과의 1대1 미팅이다, 대화하며 읽기
6. “나는 과일을 좋아해”라는 대답에 만족하지 마라, 추상어 감지하기
7. 일단 뭘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배경지식 쌓기
8. 모든 글은 한 폭의 그림이다, 이미지화하기
9. 교수님은 불친절하다, 부연 설명 만들기
10. 한 번 본 문장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법, 문장 재구성하기

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섬세한' 습관 4가지

11.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 어휘의 함축적 의미
12. 정답률 11% 문제를 맞히는 방법,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
13.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
14.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 애매하면 멈추기